

코로나19 팬데믹 시대, 아태 지역에서의 데이터 보안 강화

2020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—아태지역판

2020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 결과 -아태지역판은 전 세계의 총 1,723 명의 경영자가 조사에 참여했으며, 그 중 호주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싱가포르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IT 및 데이터 보안 담당 경영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. 설문 조사, 보고 및 분석은 탈레스의 의뢰를 받아 IDC가 작성하였습니다.

#2020DataThreat



데이터 위협의 확산



아태 지역 기업의 27%가 작년에 데이터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


아태 지역 기업의 47%는 과거에 데이터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


아태 지역 응답자 중 34%가 데이터 보안에 주력하고 있지만, 이를 위한 예산은 전체 IT 예산의 14.5%에 불과하다고 응답했습니다.

클라우드에 저장된 민감 데이터 증가



아태 지역 기업의 경우 전체 데이터의 45%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습니다.

아태 지역 기업이 클라우드에 저장한 전체 데이터 중 42%는 민감 데이터입니다.

현재의 클라우드 보안 실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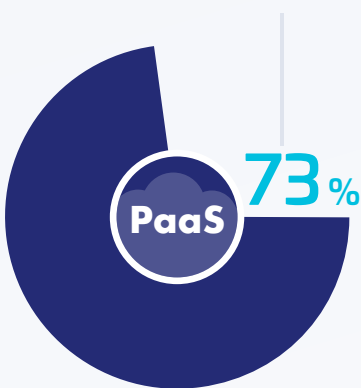
조사에 응한 아태 지역 기업의 99%가 암호화되지 않아 데이터 보호에 취약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클라우드에 민감 데이터의 일부를 저장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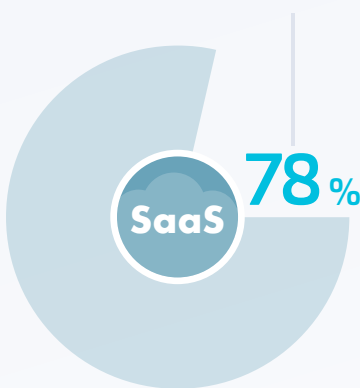
클라우드에 저장된 민감 데이터의 52%만이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.

멀티클라우드 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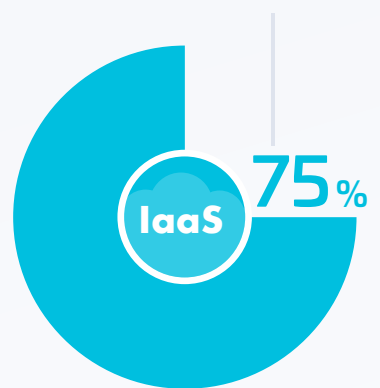
기업 중 73%가 2개 이상의 PaaS 벤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


기업의 78%는 11개 이상의 Saa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


기업의 75%가 2개 이상의 IaaS 벤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


퀀텀 컴퓨팅에 대한 대비

93%

93%는 퀀텀 컴퓨팅으로 인한 민감 데이터의 유출을 우려했습니다.

기업의 75%가 향후 5년 내에 퀀텀 컴퓨팅이 암호화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

75%

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



민감 데이터 발견



민감 데이터 암호화



암호키 관리



사용자 액세스 제어

IDC 권장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cpl.thalesgroup.com/APAC-DT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THALES

결단이 필요한 순간을 위한 결정적인 솔루션

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대로 98
6층 탈레스코리아

82.2.3278.8202



cpl.thalesgroup.com/APAC-DTR

#2020DataThreat

© Thales - September 2020 • EHV14

후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

IDC 권장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cpl.thalesgroup.com/APAC-DT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조사 및 분석 실시:

